

구주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 철회 안하는 까닭 <3/3>

◎ 구주 기업이 중국에서 철회 안하는 까닭 <3/3>

구주(歐洲)의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대상은 중국 이외에도 동구(東歐), 베트남, 인도 등이 있다. 중국의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 외자계(外資系) 기업들이 중국 이외의 이들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는 소리도 있다.

세계적인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인 부즈 알렌 앤드 해밀턴(Booz-Allen and Hamilton Inc.)이 2008년 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에서 철회하려는 기업이 다음으로 옮기려는 투자 대상국은 베트남이며, 반수(半數) 이상의 투자자들이 중국 대신에 가장 적합한 선택지(選擇枝)로서 베트남을 택하고 있으며, 다음은 37%가 인도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베트남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여, 이들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 기업들은 투자 대상지를 고를 때 매크로(macro) 경제 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구(東歐)의 여러 나라는 물류 인프라(物流 infrastructure)가 늦어져 기술을 획득하기가 어려우며, 관리직 인재가 부족하기도 하여, 투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없다. 이외에도 인플레이션(inflation)율이 10%를 넘고 있으며, 동구 여러 나라에 공장을 갖고 있던 서구 기업이 철회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연료 공급기(燃料 供給機 : 燃料罐) 메이커인 Nucan은 그러한 전형적인 예이다. 이 회사는 저코스트(低 cost)의 매력으로 폴란드(Poland)로 진출하였는데, 현지의 서플라이어(supplier)가 생산의 일부를 외주함으로써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영국에서는 코스트가 폴란드의 두 배가 되는 데도 할 수 없이 영국으로 U턴(U-turn : 먼저 상태로 되돌아감)하기로 결정하였다. 영국의 코브라 비어(Cobra Beer)도 같은 사정으로 2008년 5월에 양조(釀造) 사업의 태반이 영국으로 되돌아 왔다.

다른 나라로 생산 라인(line)을 옮겨 설치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옮기는 것을 단념하는 기업도 많다.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의 투자 경쟁력은 계속 강해지고 있다. 세계적인 회계 법인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이 2008년 6월 5일에 발표한 년도(年度)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거대한 미개척 시장(未開拓 市場)을 국내에 품고 있어 경제 성장이 기대되며, 혁신적인 활력을 품고 있어 다국적 기업 경영자들로 부터 처음으로 ‘가장 투자의 흡인력이 있는 나라’로 뽑혔다.

이 조사에서는 인프라(infrastructure), 세수(稅收), 인건비, 종업원의 자질, 경제 성장성(經濟 成長性), 기업 문화(企業 文化), 사회 환경 등의 요소가 고려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47%가 “중국은 가장 투자의 흡인력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인도는 30%, 러시아는 21%가 추천하였다. 2007년에는 미국을 뽑은 사람이 33%로 최고였는데, 2008년에는 12%로 줄었다. 서구 여러 나라 중 투자 흡인력 톱 10(投資 吸引力 top ten)에 유일하게 들어있었던 독일도 4위에서 2007년에는 6위로 떨어졌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Stuttgart)시의 시장은 “독일 기업은 인구가 13억이나 되는 중국 시장을 경시할 수 없으며, 경영을 현지화하지 않으면, 독일 국내 시장의 니즈를 채울 수 없다. 앞으로도 많은 독일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며, 그렇지 않으면 독일 본토의 고용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 경제 금융 협회(中國經濟金融協會)는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서구 측의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할 것이다. 중국의 산업 레벨(産業 level)이 향상되면서, 외자계 기업 중 일부가 중국으로부터 철회하면 그에 따라 중국 국내 기업의 세어(share)가 커지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중국 기업과 구주 기업을 비교하면 아직 상당한 차가 있으며, 구주 기업이 단기적으로 많은 기업이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하였다.♣